


평생교육,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b>보도자료</b> <b>Press</b> <b>Release</b>	2018. 5. 23(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부장	홍숙희	726-9870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팀장	김이경	755-9512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 www.jile.or.kr	동영상: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없음	

## 세시풍습과 경제로 보는 중국문화

- '중국사회 이해' 특강, 중국을 바라보는 전략적 사고의 폭 넓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중국사회의 이해' 전문가초빙 심화특강을 운영 중이다.
-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에서는 지난 5월 10일과 17일 '중국 언어문자로 보는 중국문화'와 '중국역사로 보는 중국문화'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 강연자로 참석한 제주대학교상무공자학원 홍성일 원장은 중국 언어 문자와 중국역사에 담긴 이야기들을 문화와 연계시켜 풀어내어 특강에 참여한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 ‘중국 언어문자로 보는 중국문화’ 특강에서는 언어문자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김치의 중문 브랜드명으로 고안한 ‘辛奇’가 중국에서 대중성 확보에 실패한 이유로 한자 ‘辛’이 현대중국어에서 ‘고생하다, 수고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맵다’는 뜻은 보통 ‘辣’자를 사용하기 때문임을 사례로 들었다.
  
- ‘중국역사로 보는 중국문화’ 특강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연대별 주요 사건과 내용 및 설화 등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교차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특강에 참석한 도민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으며 중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때 언어에 대한 인식도 깊어짐을 느꼈다며 차회기 특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총 4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특강의 세 번째 주제는 ‘중국 세시풍습으로 보는 중국문화’(5.31, 목)로 5.25~29일까지 중국어체험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으며, 네 번째는 ‘중국경제로 보는 중국문화’(6.7, 목)가 6.1~4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운영된다.
  
- 중국어체험학습관은 매년 ‘중국사회의 이해’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도민들이 중국을 알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중국사회의 이해’ 인문특강 외에도 기본회화, 일상회화, 심화회화, 자유회화로 나누어진 수준별 중국어교육과정, 직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교육과정, 학습자 주도성을 살린 소그룹 형태의 스스로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300명이 넘는 도민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www.jile.or.kr](http://www.jile.or.kr), 064-726-9871), 제주특별자치도중국어체험학습관([www.jjctc.or.kr](http://www.jjctc.or.kr), 064-755-9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중국어체험학습관 중국사회의 이해 심화특별과정 관련 사진 1부 끝.

[붙임 1]

□ '중국사회의 이해' 심화특별교육과정 관련 사진

